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조우호(바오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연중 시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요한 6, 41)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3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금) 19:3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금) 20:0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온 라인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10 시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을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뇨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 주(금) 성시간 후

ONE HEART, ONE SOUL

A Campaign for the Diocese of Hamilton

현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액: \$110,000 현 모금액: \$86,409 (78.5%)

One Heart One Soul 은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교구 사이트 (<https://www.oneheartonesoul.ca/give>) 참조 바랍니다.
※주소 변경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김성수(베드로) 형제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8/ 11(일) 연중 제 19 주일 (본당 11:30, 공소 17:30)
▶7/23 ~ 8/17 (토) 본당 신부님 휴가 기간중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8/ 18(일) 연중 제 20 주일 (본당 11:30, 공소 17:30)

◎감사합니다.

오늘 최성욱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 마지막 미사를 집전하십니다.

◎ 온타리오 한인 성당 골프 대회 일정

주최	일시및 장소	참가비
토론토 한인 성당 박상재 빈첸시오 (416.882.8385)	8/12(월) 11:30 Station Creek	\$160 (그린피+파워카트+석식)
캐나다 한인 꾸르실료 (문의: 간사 이정길 테오필로)	8/17(토) 13:30 Glen Eagle G.C.	\$140 (그린피+ 파워카트 + 중, 석식 + 선물)

◎은빛 모임 강좌 예비 모임
9/1(일) 미사 후 친교실
문의: 교육 분과장 이동규 프란치스코

◎성모회 단풍관광
일시: 10/5(토) 7 시 성당 집합, 7:30 출발
장소: 미드랜드 성지
회비: 추후 결정
예상 정원 인원: 50 명
문의: 성모회장 우경숙 율리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30-50 대 형제 자매님들과 친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린 아이가 있으신 가정은 아이동반도 가능합니다.
▶8/31(토) 11:00 친교실
문의: 김의수 안드레아, 박규혜 카타리나

◎주보는 미사 후 반드시 집으로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공소 소식

▶이번주 간식은 이민성 세실리아 자매님입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8 월 공소 신자 축일자. 축하합니다.
(8/15) 정영숙 마리아
(8/18) 김명숙 헬레나
(8/21) 이춘혜 그레이스

단체 소식

▶2024 캐나다 한인 남성 제 43 차 꾸르실료 주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가기 위한 형제를 위한 꾸르실료 주말 교육의 신청을 받습니다."
* 기간 : 9 월 5 일(목)~9 월 8 일(일)
* 신청 및 문의 : 간사 이정길 테오필로

친교 식사

7,8 월은 각 구역별로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10 명)			
주일헌금	\$1070	교무금	\$1750
감사헌금	\$0	성전건립	\$0

감사합니다.

도네이션 – 주일학교 \$100(권병학 요한)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十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8 월 본당 세례 축일자 (38 명)

8/ 7 클라우디아(윤은주)
8/ 8 도니미코(한성준)
8/11 글라라(우미란, 최경애, 김영신, 임예천, 송혜란, 정명자)
수산나(주수원, 장순태, 박혜영)
8/12 요안나(김정해)
8/15 스텔라(이경지, 김영미, 박양숙, 김승희)
마리 스텔라(강서윤, 나운하), 쉐리나(김지유)
8/16 스테파노(김춘삼, 윤철)
8/18 헬레나(김경희, 김나은, 조은자)
8/20 사무엘(민명식,신명철)
8/21 그라시아(신민영)
8/23 로사(류정옥, 김용순, 하대교, 고예진, 김영미)
8/27 모니카(최광수, 이은자, 함영자), 요한(전대원)
8/28 아오스딩(우금환)
8/29 사비나 (김양월)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8/11	박혜영 수산나	최두원 스테파노 이준규 안드레아	1 독서: 김한욱 에릭 2 독서: 임연신 비아	권희진 요안나 김영미 스텔라
8/18	김성수 베드로	유세진 라파엘 유서진 다니엘	1 독서: 김의수 안드레아 2 독서: 박혜영 수산나	김한욱 에릭 임연신 비아
8/25	이은영 힐데가르트	최두원 스테파노 이준서 사도요한	1 독서: 이인선 쟈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김의수 안드레아 박혜영 수산나

익숙함에 대한 불신앙

김현일 예로니모 신부
성 바오로 성당 주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한 6,41-42)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은 익숙함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성장 배경이나 부모나 친척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배경에서는 저런 인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가족에 대한 불신, 이웃에 대한 불신, 이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러한 불신은 결국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누구와 비교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는 멀리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 대한 불신앙을 타파하기 위해서 일생을 사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늘 나라는 예수님의 복음 자체입니다. 하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우리 손이 닿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하늘 나라에 갈 사람과 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갈라놓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갈라놓고 성한 자와 병자를 갈라놓고 의인과 죄인을 갈라놓습니다. 하늘 나라가 여기에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삶과 피를 내놓으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삶이다.” 빵은 먹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우리의 빵으로 오셨습니다. 차디찬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공생활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과 병자, 창녀, 세리,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서로의 마음속에 와 있는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차별이 없는 하늘을 살기 위해서 성체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삶이다.” 아멘.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환대와 경청의 해

2024 사목지침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연중 19 주일

(2024. 8. 11)

제 1 독서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19,4-8

화답송 시편 34(33),2-3.4-5.6-7.8-9(◎ 9 ㄱ)



후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4,30 - 5,2

복음 환호송 요한 6,51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복 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6. 41-51

입당 34

봉헌 512

성체 496

파견 441